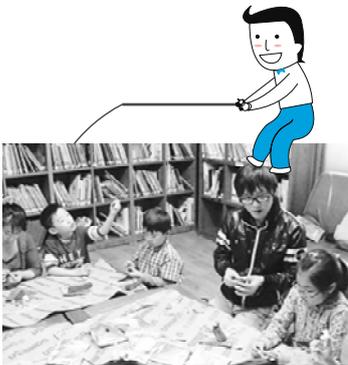


# 아이들은 책 읽고 엄마는 강좌 듣고... 남녀노소 함께 즐기는 '문화 사랑방'

## 최우수 마을도서관 '서구 만평 주민도서관'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책을 보는 모습. 작은도서관의 큰 장점은 이처럼 집 가까이에 자유롭게 독서하고 토론 할 수 있는 점이다.

매미가 시끄럽게 울고 해가 뜨거운 3월 오후 2시 대구 서구 원대동. (사)지원봉사능력 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쪽방촌을 거쳐 좁은 계단을 따라 오르면 가정집을 개조해 만든 평방135㎡(약 37평)의 아담한 도서관이 있다.

이름은 '만평 주민도서관'으로 도서관 살림을 맡은 김윤정(여·27) 간사가 도서관을 찾는 아이들을 반갑게 맞는다.

만평주민도서관은 일반 도서관과 다르다. 안방에 앉은뱅이 책상이 있고 아이들 키보다 훌쩍 큰 책꽂이들이 한 가득 책을 안고 있다.

여름방학을 맞아 원대동 동네 아이들끼리 소파에 앉거나 탁자에 앉아서 혹은 자유롭게 누워서 책을 읽고 있다. 일반 도서관처럼 일시 책상에 꽂아서 앉아 읽는 책이 아니라 친구 집에 놀러와서 책을 읽는 듯 한 모습이 있다.

방학동안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문예리(여·18)양은 "자유로운 도서관에서 동생들이 책을 읽고 토론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다"며 "자원봉사활동을 일주일 더 하고 싶다"고 말했다.

시강, 상가, 술집 등이 밀집하여 상대적으로 주변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아이들이 책과 벗하며 뛰어 놀 수 있고 지역 주민의 공동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서관은 처음 출발했다.

지난 2009년 8월 18일에는 (사)지원봉사능력개발원에서 '만평 주민도서관'이라는 정식 이름도 내걸었다.

도서관의 연간 운영비는 500여만 원 정도. 일부는 (사)지원봉사능력개발원에서 지원을 받고 일부는 도서관 회원의 1만원 연회비로 충당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는 연회비를 받지 않고 집에 있는 책 한 권을 기증하면 자동으로 회원 가입 때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법원에서 과외된 회원들을 비롯하여 3명의 직원, 정기봉사자 5명 등이 도서관 운영 예산을 아끼며 문화강좌·역사 탐방 등 많은 도서관 프로그램 다양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또 서구 내당동의 광개토태령이 도서관을 후원해, 도서관은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관람행사를 열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 여성이주자 모국어 교육을 보급했다. 이처럼 만평 주민도서관은 자치단 큰 역할을 해 내는 변모를 갖추게 된 것이다.

설립 초기에는 2층 쪽방이었고 마치 사설 독서실 같은 느낌에 아이들이나 주민들의 발길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도서관에서 가까운 인지초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를 위한 문화강좌를 비롯 해, 독서논술 지도, 만화교실, 리듬교실 등을 열었다. 지역주민들이 끊임 주체로 소모임을 가질 수 있는 강좌를 개설 해 도서관이 책보다는 공간 이상의 장소가 됐다. 만년 지 1년이 지난 무렵 아이들이 비롯해 일반들도 도서관을 이용하며 만평주민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1년 전부터 도서관을 이용한 이은주(여·38·원대동)씨는 "1년 전만 해도 '쪽방상남소'가 2층에 위치하고 도서관은 3층에 있어 이용이 어려웠다"며 "1년 사이 시설도 나가지고 각종 강좌프로그램도 많아지는 등 도서관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 흐뭇하다"고 말했다.

도서관은 일 수요일에 35명이 불과한 작은 공간이지만, 열람실, 시청각실, 놀이방, 사랑방 등으로 공간을 알차게 꾸몄다. 이제는 6천여권의 각종 장서를 비롯해 1일 평균 20~25명, 연간 2천 여명이 가까운 지역 학생과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작은도서관 성장동력  
작은도서관은 마을단위로 최근 2년전부터 생겨 아직은 그 이름이 생소하다. 시·구립 도서관과 같은 큰 도서관에서 다소 먼 지역에 있는



여름방학을 맞아 더욱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을 찾고 있다.

사람들에게도 도서관 혜택을 주기 위해 생겨났다. 하지만 대형아파트 단지가 부지하는 도서관이 아닌이삼, 후월동에 의존하는 법인봉사단체는 실상 건물대여비나 신간도서를 구입하는데 당장 재정을 겪기 어렵다.

만평 주민도서관 또한 지역 주민들이 서서히 찾아오고 이름을 알려 나가고 있지만 당장 9월에 건물을 비워야 하는 어려움이 처했다.

김윤정 간사는 "작은도서관의 가장 큰 장점은 지역민들이 가장 가깝고 쉽게 찾을 수 있는 점이라서 현재 건물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거리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책꽂을 찾아도 마땅한 곳이 없는데, 지금 건물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 버리면 지금 오던 친구들이 갈 곳이 없어질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만평주민도서관 뿐 아니라 법인봉사단체가 운영하는 소형도서관들은 이렇게 건물 월세부터 시작해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다.

또다른 문제는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이다. 법인 봉사단체가 운영하다 보니 도서관 운영은 모두 사회봉사자가 담당한다. 만평 주민도서관도 중앙도서관에서 지원받아 일주일에 한 번씩 전문 도서관 사서와 서서서가리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했다.

◇주민 손으로 만드는 참여 도서관  
작은도서관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주민참여'다. 만평주민도서관을 올라가는 층계 벽에는 학생들이 주민 참여작품, 그림 등이 전시 되어 있다.

도서관에서 열린 종이접기, 플래시 아트, 글씨강좌 후 학생들이 뽀얀 작품들이 도서관 벽에 걸려 하나의 '인테리어 장식'이 됐다. 이곳을 찾는 학생들은 자신의 작품이 벽에 걸릴 때마다 도서관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인 참여자격을 형성할 수 있다. 또 도서관은 자녀간지 연회비를 1만원 받았지만 올해 부터는 연회비를 없애고 책 기증을 회원가입 절차로 바꿨다. 책 기증을 하면 책 1면이 'OO님의 기증'이란 표시를 한다. 1회월 1권씩 기증해도가 생기니 회원 스스로가 도서관에 기여한 뿌듯한 마음을 표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작은도서관 회원들이 손으로 꾸미고 회원들이 책을 모으

는 방식의 자발적인 도서관 운영이 가능 할 점이 강점이다.

### ◇최우수 주민도서관 선정

만평 주민도서관이 생긴지 3년째 된 올해는 도서관에 큰 경사가 있었다. 지난 달 대구시에서 103개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조사에서 바로 '만평 주민도서관'이 최우수도서관으로 선정 된 것이다. 그리고 선정 기념으로 1년 운영비에 맞먹는 5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김윤정 간사는 "너무 기쁘다"며 "받은 상금으로 신간 도서를 구입하고 아이들을 위한 책상도 살 수 있다"며 밝게 웃었다.

대구시에서 선정된 최우수 작은도서관은 6개소로 동구의 반야월 행복도서관, 북구의 도토리 도서관과 대한 6평면작은도서관, 달서구의 성당 포스코 다산 도서관, 성당 하늘재 아파트 도서관이 뽑혔다.

신규입점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조희재도 잘 되고 부지도 잘 되면 편이겠다. 그 외 작은 도서관이 자원봉사단체의 부차로만 운영되지만 사실 어려운 점이 많았다.

이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만평 주민도서관은 지역주민을 모으는 다양한 강좌를 특색화 해 선정됐다. 먼저 만평 주민도서관은 다문화 가정을 위한 연회비 특성을 고려 해 중국·베트남·캄보디아의 모국어 로 된 장서 100여 권을 마련 해 이주민의 향수를 달래주는 공간을 만들었다.

또 종이접기·미술·논술지도·역사강좌 등 전문자원봉사자의 지원으로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선정 소식에 서구청도 도서관 운영 사업비 500만 원을 확보해 지원 할 방침이다. 현재 서구에는 만평주민도서관을 비롯해 4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고 작은 도서관을 통해 연간 가 2만 여명의 아이들과 주민들이 독서를 생활화 하고 있다.

이대훈 서구 부구청장은 "도서관은 학생들의 장소가 아닌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가장 가까이 있는 공간"이라며 "도서관이 서구의 문화강원력을 하도록 지속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kh89@daegu.co.kr

열람실·시청각실·놀이방 등 갖춰  
논술지도·만들기교실 등 문화강좌도  
연회비 대신 책 한권으로 회원 등록  
다문화가정 위해 모국어 도서관도



부모님 생전에 호도하고  
어른을 공경합시다

보건복지부처가 제283호·재정부 지정 공익성 기부금 단체  
(사)한국노인복지봉사회 대구·경북본부  
전화 : (053)952-8711 · 017-501-8711(본부점)  
이 광고는 후원금으로 이어 집니다.  
후원계좌 : 703231-01-002646(우체국)

웃으면 올라 갑니다 미소가 곧 '경쟁력'

우리가 한번 웃을 때,  
우리가 질서를 지킬 때,  
우리가 환경을 깨끗이 할 때,  
국가 경쟁력은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세계 22위, 정부도 기업도 아닌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일입니다.